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합 3:2)



오늘, 2023년 제 1차 유아세례식

일시: 6월 11일(오늘) 찬양예배시

대상: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 참여한 부모의 자녀

2023년 제 2회 CMTC 훈련

1차(비전): 6월 18일(주일) 16:30~18:30

2차(도전): 6월 25일(주일) 16:30~18:30

장소: 갈릴리홀

새가족 환영회

일시: 2023년 6월 18일(주일) 오후 2시

대상: 23년 3월~5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권사회 수련회 및 월례회

일시: 6월 20일(화) 09:40

장소: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집중기도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21(수), 6/28(수) / 2주간, 오전 10:00 ~ 10:40

장소: 베다니홀

대상: 충현의 모든 성도

주관: 예배위원회 중보기도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부흥(Revival)’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온 세상에 비추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의 필생의 화두였습니다. 그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에 목말라 했습니다. 특히 깊은 어둠과 영적 혼돈의 시대, 하나님 말씀이 부재(不在)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그 현실이 호도될 때,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하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멈춘 듯하여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거룩한 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꺼져 가는 ‘금빛 나는 횃불’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불꽃이 타올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셨고, 마침내는 그 ‘구원의 횃불’로 열국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마다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너무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중국에는 성령의 능력이 개인을 넘어 한 마을을 삼키고 한 나라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歷史)는 초대교회 이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役事)하심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애즈베리 대학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배가 몇 주동안 멈추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은 이때에 우리 충현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충현의 다음 70주년을 책임질 우리의 다음세대가 부흥의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길 같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 선교를 완성하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차량안내부에서 충현의 예배와 주차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60세 이하 남성 성도

지원방법: 차량안내부(B1)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기타문의: 김명성 부장(010-9910-4567)

정재복 차장(010-3712-0165)



평화의 왕을 만나다

(시편 88:13-18)



시편 88편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전달한 특별한 애가(탄식시)입니다. 애가에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여, 시인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드린다는 네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는 3개의 기도로 구성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 88:1-2)”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 88:4-5)” 시인은 마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장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간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시 88:8)”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있는 시인의 간구는 당연히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희망을 놓아 버릴 수도 있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편 88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 88:9b)” 두 번째 기도에서 시인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 하리이까(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시 88:10-11)” 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리켜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질문이 아닌 ‘수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고 의문문은 평서문의 강조어법으로 바꾸는 해석과정을 거치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인자하심’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이기에,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주님 앞에 묘사한 첫 번째 기도에서 이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3절)” 애가의 특성에 따라, 시인의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4절)”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영혼을 버리셨고, 주님의 얼굴도 그에게서 숨기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꿰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6-17절)” 시인은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을 붙잡아 물밑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8절)”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아는 자는 흑암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흑암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던지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매일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시편 88편은 성도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가장 어두운 시편(The Darkest Psalm)’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시편 88편의 상황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광야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편 88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이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믿는 이들에게 시편 88편의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바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에 시인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흑암입니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시편 88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신약성경과의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한 분,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죄인으로 대우하시고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따라서 시편 88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시도록 지어진 예수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편 88편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인자하심은 결코 버리지 않음을 뜻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음은 개념상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인자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 인자를 우리에게 부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도록 지어진 노래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에, 시편 88편은 ‘울어도 괜찮다. 담대하게 나에게 나오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노래이기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울고 탄식하더라도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이루셨기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힘도 얻게 됩니다. 울음조차 소망이 되고,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습니다. 십 수 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시편 88편을 함께 나누고 난 후, 한 젊은 전도사님께서 제게 다가와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은혜 속에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제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얼굴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으십니다. 설교 제목처럼 ‘평화의 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로과 평화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평화의 왕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셔서, 주님과 더 붙어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시편 88편의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88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88편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준 시편이라 불리는 까닭은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김희석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Meet the King of Peace

(Psalm 88:13-18)

Rev. Hee Seok Kim

Psalm 88 is a special lamentation(a lament poem) that delivered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precursors of faith who preceded us in the path of belief. There are four common elements that begin with 'calling God', describing several pains the poet suffers, 'asking God for deliverance', and lastly offering to God 'the confession of trust in God' in the lament. Psalm 88 is composed of three prayers whose contents are gradually getting profound. "Lord, you are the God who saves me; day and night I cry out to you. May my prayer come before you; turn your ear to my cry."(Ps 88:1-2). Calling God of deliverance, the poet explains the hardships he faces. "I am counted among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I am like one without strength. I am set apart with the dead, like the slain who lie in the grave, whom you remember no more, who are cut off from your care."(Ps 88: 4-5). The poet pleads to God to deliver him from the circumstance hard enough for him almost to die. "You have taken from me my closest friends and have made me repulsive to them. I am confined and cannot escape;"(Ps 88:8). The petition of the poet who is in the situation of difficulties and pains of all the human relationships disconnected seems to be natural in a way. However, because we can lose hope when we face difficulties, the first prayer in Psalm 88, which surrenders his own heart to God, can be a lesson to instruct us to submit the heart to God. "I call to you, Lord, every day; I spread out my hands to you."(Ps 88:9b). The poet confesses in the second prayer he prayed to God everyday. "Do you show your wonders to the dead? Do their spirits rise up and praise you? Is your love declared in the grave, your faithfulness in Destruction?"(Ps 88:10-11). Scholars refer to this expression as a "rhetorical question" whose form is a question but content is not a question. If you go through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which you change the positive into the negative, the interrogative into the emphatic usage of the declarative, it means 'the lovingkindness of God can not be declared in the grave.' Because 'lovingkindness' means God is sure to keep his promises, after the first prayer in which he describes his situation before God, the poet strongly asks God to deliver him in his second prayer.

"But I cry to you for help, Lord; in the morning my prayer comes before you."(v.13).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ament, the poet confesses his trust in God through his third prayer. The poet expected God to respond to his own prayers. "Why, Lord, do you reject me and hide your face from me?"(v.14). However, contrary to his expectation, God discarded the soul of the poet and hid the face of the Lord from him. "Your wrath has swept over me; your terrors have destroyed me. All day long they surround me like a flood; they have completely engulfed me."(vs17-18). The poet expresses that the wrath of God, not the restoration, is taking him underneath the waters. "You have taken from me friend and neighbor—darkness is my closest friend."(v.18). If we translate the original text directly, it means 'The one whom I know is darkness.', but darkness means the very death so it can be an expression that God threw me away into death. Since the poet was a man of faith who knew God, knew God's grace, enjoyed intimacy with God, realized the lovingkindness of the Lord, and prayed day and night, Psalm 88 makes believers very embarrassed. Therefore, some Bible scholars refer to this Psalm as 'The Darkest Psalm'.

The meaning of Psalm 88

If so, why did God give us Psalm 88? Why is Psalm 88 called a psalm which gave lots of ancestors of faith comforts and challenges? There are times when circumstances of Psalm 88 come to us in our lives. God seems not to respond to the prayer and we sometimes experience wilderness and 'a dark night of the soul' in which our entire lives seem to shake. In these circumstances, Psalm 88 is meaningless to the one who thinks the relation-

ship between God and himself is not so important. However, to those who experience and believe the living God is my God, my savior, and my leader, the circumstances of Psalm 88 are unbearable. Because they cannot feel the Lord of love, cannot understand the lead of the Lord, they lament like the poet,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The first method to understand Psalm 88 is to interpret it in organical connection with the New Testament. In the period of the New Testament appears Jesus, the only one who enjoyed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By the way, God abandoned the Son, Jesus, made him hang on the cross, treated him as a sinner, and let him go down to death. Accordingly, Psalm 88 can be said to be a song of Jesus that was composed in order to be sung by him on the cross. The second method is that God the Father took away His lovingkindness from Jesus the Son. Because lovingkindness means never abandoning, the fact that God abandoned Jesus is the conceptual contradiction. Nevertheless, the reason God took away his lovingkindness from Jesus and made him die on the cross was to keep His lovingkindness toward us and pour lovingkindness on us.

Because it was composed to be sung by Jesus and it is the word of the Bible given to us, Psalm 88 is the word of comfort saying 'It's all right to weep. Come boldly to me.' Because Jesus sang the song first, we can have hope with the faith that the lovingkindness of Jesus has been given to us in the midst of despairs, pains, wails, and laments and that His lovingkindness will be with us forever. Because Jesus already finished all, we can obtain the strength to start over with courage. Even weeping becomes hope, we can take a step again in the midst of prayers. This is what a young evangelist came to me and told me after sharing Psalm 88 when I was studying abroad in Chicago much more than a decade ago. "I was in the deep and intimate grace of God, but since a few years ago I haven't felt God. I felt as if God abandoned me. However, through the word of Psalm 88 I came to know I had to change my thought. I could see the love of God has been given through the crucifixion of Jesus even though it is invisible to my eyes. From now on, I'd like to allow the truth of the Gospel, not my emotion, to lead my living. I will start again." I remember the face of this young man saying this was full of the light of grace of Jesus. Dear my beloved believers, God is calling us now. He is stretching out his hands of grace to us. 'The King of Peace' in the title of sermon is the very Triune God. God the Father who sent His Son for us, the Son Jesus who died on the cross in person for us, God the Holy Spirit who is still with us and provides us with new strengths and abilities meets us with shalom and peace of God. Let's hold His hands and live precious and meaningful lives as people of the Heavenly Kingdom. I bless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 will meet the King of Peace, go back with His love in your heart, exert your strength again with the Lord and begin the life of faith again.

영역·이윤의



어와나 올림픽

5월 27일 토요일, 교회의 지원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된 어와나 올림픽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기지역 22개의 교회를 통해 약 30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어와나 주제를 부르고, 함께 경기를 하고 응원으로 하며 서로의 모습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팅스팀(7-9세), 티엔티(10-13세) 남자팀, 여자팀, 33명의 선수들과 교사 및 선수 가족들이 처음 참여한 올림픽에서 감사하게 페어플레이상 및 각 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제의 장을 경험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10살, 8살 자녀와 함께 참여하였는데, 아이들 모두 각 팀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다른 친구가 실수하고 잘하지 못해도 탓하지 않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른인 제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올림픽을 참여하였는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보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앞으로 계속 잘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은유, 임세아 어머니>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어와나 올림픽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모여 연습을 하고나면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준비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의 염려와 달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사실 선생님도 정말 정말 떨려!!”

우리는 첫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한껏 신났다가 다음 경기에선 사소한 실수로 실격을 당해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응원하며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안전사고 없이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티엔티 남자팀 코치 : 김영은 교사>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어와나 올림픽에 갔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거라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가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얼음이 되버릴 것 같았다. 다른 교회친구들이 잘난 체하며 으시대는 모습이 싫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충현교회 스팅스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 우리는 페어플레이상과 동메달을 받았다. 너무 기뻐다. 친구들과 언니들도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스팅스 정사랑>

어와나 올림픽에 간다고 했을 때 떨렸지만, 선생님들과 토요일마다 연습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5월 27일 남동체육관에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모여 어와나 구호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 동안 준비했던 경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응원해주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티엔티 윤예성>



11교구 영성훈련을 마치며



11교구가 5월 27일(토), 충현기도원에서 첫 교구 영성훈련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로운 영성집회와 즐거운 레크레이션, 맛있는 식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1교구가 충현교회의 교구로써 카페드림 봉사, 성경암송, 교구찬양, 충현 동산 봉사 등의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하고 풍성한 교구가 되도록 함께 섬길 것입니다.

이번 영성훈련을 통하여 교구 식구들이 교구에 소속감을 느끼고, 교구의 풍성한 사랑과 따뜻함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계획하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11교구의 손님이 아닌 11교구의 가족됨을 느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지수 집사



처음으로 교구 전체가 함께 한 영성훈련이기에 생소하지만 설렘과 기대감으로 충현기도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기대감은 고스란히 큰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차에서 받은 간식부터 식사와 말씀과 게임까지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 김혜성 집사

아직은 처음이 많은 충현교회의 새내기로서, 충현기도원으로 향하는 버스시간 마저 신나는 소풍과도 같았습니다. 교회의 생활이 낯선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1교구 성도님들과의 함께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 최인아 성도



순서 하나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한 일꾼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동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영성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11교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훈련을 준비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11교구 파이팅!

- 이정민 집사



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봄학기(9기)를 마치며 (1)

코로나 이후 자유롭게 만남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던 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봄 학기(9기) 강좌가 10주 동안(3.15-5.26) 은혜로 개강하고 기쁨으로 종강했습니다. 매주 수, 목, 금 주1회 5개 학부 32개 강좌에 총 308명의 성도님이 423개의 강좌(중복 신청)를 신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신규 런칭한 다양한 강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랑으로 기부하며 섬기신 전문가 강사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각 강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영적, 육적 유익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수강료 없이 무료임에도 점심이 제공 되어 성도님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더 뜻 깊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쁨의 열매를 나눕니다. (종강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의 후기를 편집했습니다. 다음주에도 나눔은 계속 됩니다.)

영성학부

헬라어(강사 이기영 목사)

- 하나님이란 단어만이라도 알자는 심정으로 헬라어를 시작했다.. 너무 어려웠지만 이기영 목사의 열정과 최대한 쉽게 풀어주시려는 노력에 감사!!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듣게 해주셔서 또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세계관(강사 이수경 전도사)

- 유아세례를 받고 기독교 집안에서 익숙한 교회 문화에 살아왔지만,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고민을 했다.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며 무엇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저 나의 욕심일까.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고 부모님께 조언을 얻으며 살아왔지만, 기독교 세계관 강의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과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를 정확히 확인하며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았다. 매번 일정한 분량의 강의와 확인 문제를 통하여 강의를 듣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게끔 하였고 다른 성도들과의 나눔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다. 또한, 추가 영상들도 보내주셔서 매우 알찼다.



건강학부

Walking with Jesus 건강걷기(강사 김정숙 강사)

- 강사님께서 한 분 한분 성심 성의껏 지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수강생들과의 소통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바른 자세 교정으로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지침 (강사 이현규 집사)

- 강사님의 열성적인 강의 너무 감사했고 저와 같이 운동하시는 분과 수지침을 같이 배우면서 전도중입니다. 수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 수지침이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좋아요



어문학부

기적의 수어 첫걸음(강사 강가일 사모)

- 강사님께서 책에 맞춰 진도를 나가주시고 수어 찬양도 알려주시고 수어뿐 아니라 농인들의 입장에 알려주고 가르쳐주셔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 깊어져 좋았습니다.♡
- 수어표현을 너무 리얼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농인문화와 사랑이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 수어로 소통한다는 것이 타 언어보다 더욱 힘이 들었어요.. 한 단어에도 몸짓과 표정에 다른 수어단어가 되어버려 더욱 신중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배우는 중국어(강사 원성수 집사)

- 찬양으로 배우는 중국어: 원성수 집사님의 차분한 멘트로 편안하며 흥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국어 찬양을 배우게 되었고, 프린트물을 배부해 주셔서 잘 정리해 놓아 복습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지난 날 내물골, 캄보디아 등 영혼을 품고 다른 나라를 선교하며 찬양하던 때가 생각됩니다. 찬양은 제게 은혜의 강과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 암송(강사 신보경 집사)

- 아침마다 말씀으로 일깨워주시고 영어발음도 꼼꼼하게 교정해주시고 매일 암송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격려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어 더욱 고맙습니다
- 정확한 발음과 문법적 설명, 해박한 성경지식, 암송을 위한 반복학습의 노하우를 가진 강사님의 지도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18절 까지를 암송하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영상강의 시작 전에 매번 영어로 기도해 주심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한 언어 실력 갖추기(강사 장철환 장로)

- 매우 열정을 갖고 일본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선교 일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 기초도 없던 나인데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개괄적으로 일본어를 알게 되어 좋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문장과 문법 그리고 선교언어를 배우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일본어 회화에 왕초보로 신청하여서 장로님의 열정으로 강의해 주시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장애인의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이 표현은 투병 중인 엄마로 인해 가족들이 자연숲이 있는 시골에 거주하며 두렵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을 표현한 초등 6학년 남자 아동의 글짓기 수상작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향한, 장애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아니, 예수님의 주되심(Lordship)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심령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이자 장애인 부서 설립 35주년 되는 올 해, 장애인의 주일을 맞아 사랑부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장애아동들과 성인장애인이 함께 본당에서 2부 대예배를 드렸다. 제가 섬기고 있는 14살의 장애아동은 3살의 정신연령의 전반적 발달장애로 자폐아동이다. 일반적인 3살 아동의 집중시간은 통상 자기연령 곱하기 3이니 가장 최장 시간이 9분 이내이다. 순수하고 천진한 13살의 제 친구도 처음에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묻고 엎어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의자에 누워 있다 목사님 축도시간에 일어나 예배를 마쳤다. 예배시간 내내 머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눈동자가 되어서 모두를 감찰하셨다. 사람들의 시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할 때가 많으나, 사랑부 장애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소망·사랑을 공동으로 관통하는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평상시 같으면 자리를 몇 번이나 이동했을 친구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킨 순수한 사랑부의 모든 친구들이 자랑스러웠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마련한 도전! 장애 OX 퀴즈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부의 차세대 일꾼이 될 선생님들에 의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었다. 한 영혼을 위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측정 불가한 불같은 사랑이지 않은가... 인식의 전환은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한 시간이었다.

장애인의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는 사랑부의 장로님과 지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교사, 성인 장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사랑의 찬양은 모두의 수고와 마음을 위로해주며 주님과 하나로 결속되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요집회에서는 사랑부의 성인장애인들의 거침없는 성경암송과 악기연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부 임진실 목사님은 지혜이신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할 것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도 그들이었기에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사랑부 장애인들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시선과 마음이 있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과 합심하여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사역이 한 단계 성장·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장애인들 또한 교회가 품어야 할 선교 지이고 함께 예배 할 수 있는 영적 권리가 당연시 되어 지길 기도한다. 끝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위로하며 모두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열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임할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한다.

- 사랑부 고민경 교사

장애인의 주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라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나가며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장애인의 주일 당일, 담임목사님께서 설교말씀 중에 해주신 깜짝 홍보 덕분에 코니카페 1층에 준비된 행사들은 모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통해 멋지게 쓰여진 말씀을 선물 받고, OX 퀴즈를 통해 장애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맛있는 간식의 나눔을 통해 성도가 서로 즐거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현교회에 일찍이 사랑부 부서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사랑부 정두희 교사



총현교회
직원모집

총현기도원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 기도원 관리직(세례교인)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 교인은 세례교인증명서
제출처 : 총현교회 사무국
제출기한 : 6월 18일(주일)
문의 : 총현기도원(031-766-5425), 교회 사무국(02-552-8018)

하절기 간편복장 실시

기간 : 6월 18일(주)~8월 27일(주)
복장 : 노타이 정장 차림
예외 : 예배 관계자(설교, 사회, 기도, 안내 등)

6월 정기당회

일시: 오늘(6월 11일) 찬양예배후

9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실시

일시: 6월 17일(토) 오후 2시, 백마임마누엘교회(경기도 일산)

청년3부 가정세미나

일시: 6월 11일~25일(3주간 매주일 집회 후 진행)

제1기 통일선교 사역자 훈련(3차 강의)

일시: 6월 17일(토) 10:00~12:00 장소: 베다니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339	박재균	고등부	
2	0779	최유준	유년부	
3	0816	심무현	고등부	윤예린
4	0996	이윤규	영아부	
5	0997	이도건	영아부	
6	1001	김예준	영아부	
7	1005	김서원	유치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24	오연지	사랑부	
2	1029	권보현	기본과정	
3	1030	변현우	기본과정	
4	1031	여혜진	기본과정	한세화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26	김인준	기본과정	
2	1027	이라	기본과정	
3	1028	김이담	유아부	

결
혼

1. 조호용 군(조복현 씨·노은희 씨의 아들, 11교구)과 양하은 양(양기수 장로·임복
례 권사의 딸, 3교구) / 6월 17일(토) 13:00 총현교회 갈릴리홀

별
세

1. 박귀임 타교권사(정이숙 권사의 모친·임성돈 안수집사의 장모, 9교구) / 7일 별
세, 9일 장례

예배 담당(6/14~6/18)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6/14	수요 I	잠언으로 그리스도 보기 (잠 15:33) 이다현 목사	임대영	김미숙
6/16	금요집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롬 4:1-25) 한규삼 담임목사	김주한	
6/18	주일 I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잠 1:1-7)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김희동
	주일 II		윤성복	홍금성
	주일III		위안복	강태영
	주일찬양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 (시 18:1-6) 김승래 목사	강성은	이승근

교구별 주력새벽기도(6/12~6/18)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2(월)	전영재/최용익	롬 8:31-39	10교구
13(화)	한규삼/장기락	롬 9:1-18	전교인
14(수)	박성덕/김낙교	롬 9:19-29	전교인
15(목)	박영환/전승기	롬 9:30-10:4	6교구
16(금)	문진호/구자균	롬 10:5-13	3교구
17(토)	박요셉/박요셉	롬 10:14-21	전교인
18(주)	김상래/김상래	롬 11:1-12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 집 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르위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위안복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9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12:40~13:40(이보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이사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무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등록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안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성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행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필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